

재벌기업들은 절대 양돈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김 의 승
(본회 대전지부장)

언제 부터인가 우리는 연필 1다스(DOZEN), 오징어 1축을 날개로 꺼내서 팔기를 싫어하고 한 꺼번에 몽땅 다팔로 팔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대만사람들은 “1자루, 1마리라도 정성껏 포장해서 수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술잔에서도 차이가 난다. 막걸리 한잔을 술도 안취고 거뜬히 마시지만 일본사람들은 작은 소주 한 잔을 세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신다.

미국의 제일 큰 술집에서 한국의 귀공자들은 골든벨을 곧잘 눌렀다. 한국은 과연 잘 사는 나라였던가? 비행기 내에서도 외국의 스텐어디스에게 서슴없이 많은 팁을 주는 우리네들, 하나씩 꺼내서 팔기를 꺼려하고 큰 잔을 좋아하며 나물 먹고 이쑤시는 허풍도 있지만 그 위풍도 대단하다. 그리하여 88올림픽 티켓도 따냈고 거대한 해외건설수주공사 계약도 우리의 것이었다. 로비를 잘하는 명수들이다. 이러한 명수들이 있기에 우리의 경제는 급성장하여 자동차도 잘 만들고 신발도 예쁘게 만들어 수출을 잘 하는 나라가 되었다.

기업들은 쑥쑥 커나왔으며 나무한가지만으로는 속이 안차서 얼마 안지나서 여러가지를 거느리는 큰나무로 성장한다. 봄비를 맞으면서 서서히 자라고 있는 작은나무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른바 두부와 콩나물까지 자기들의 손에 넣으려고까지 했다. 예

의와 질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70년대에 대경제공황인 석유파동을 겪어야만 했다. 물가는 세배씩 오르고 모든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오로지 한 S재벌만이 흑자를 보았으며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무엇때문인가? 바로 돼지란 놈이었구나! 너도할래 나도하련다. 잠깐사이에 냄비가 들끓는다. 이른바 재벌기업들이 너도나도 축산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돈농민을 위해 개정된 축산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경제기획원이 물가를 빌미로 그것도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여 재벌기업들에게 양돈업을 참여시키려 하고있다.

몇년전 어느 대학교수님은 「한국은 공업분야인 자동차수출에만 신경쓰지 말고, 눈을 돌려 비행기로 30분거리에 있는 일본의 돼지수출시장을 우리보다 더 먼거리에 있는 대만사람들에게 왜 빼앗기고 있는가」라는 말을 하자 곧 이은상공부의 발표는 이제 돼지는 농촌에서 유망한 전략수출상품이라고 선전하여 우리양돈인의 가슴은 부풀고 흥분하였다.

우리가 기른 돼지고기가 수출을 하며, 이제 돼지수출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흥분이 채가시기도 전에 88올림픽이 끝난후 89년부터 돼지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산지에서 한 마리가 7만원대에도 못미쳤다. 이러한 때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단속강화로 마침내 현행법도 아닌 농

▄▄▄▄▄▄▄▄▄▄

**정부는 우리가 처해있는 농촌의 현실, 양돈업의 현실과
미래를 깊이 인식하여 숲을 보면서 나무를 못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민인 양돈업자가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낮은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이려고 있다가는 평생 파출소에도 한번 가본 일이 없는 나머지 철창신세를 지는것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부하(돼지)들과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하여야겠구나. 그리하여 세계 어느 농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단일직종(양돈업)에서 40%나 되는 이직자가 발생한 것이다.

낮은 돼지가격, 폐수단속강화 그리고 굶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인력난, 이 트리오(TRIO)가 돼지숫자를 적게 만드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맞게된 것이다.

UR이라는 괴물의 형상이 몰려오고 있고 농촌의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덮혀있다. “우리의 생산품목 만큼은 완전수입개방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안가서 그 NTC도 무너지고 만다. 대만에서 돼지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돼지고기 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로 변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수입된 대만산 돼지고기 품질도 별 수 없었으며 유럽의 양돈업도 한계에 와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외환보유고가 두 번째인 대만도 일본처럼 양돈업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보도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오히려 그들 나라에 돼지고기를 역수출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도 부부간에서 1,000두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를 향하여 900만두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선진농업국에선 수급조절을

생산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시만 하십시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 조금만 부족하면 마구 수입을 해온다. 그것도 시원치않아서 이제 재벌기업들에게 양돈업을 참여시키려 한다.

올들어 무역적자가 6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정부가 정한 올해 연간 목표를 넘어선 것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수출을 대폭 늘리든지 수입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더구나 수입 개방이라는 압력때문에 어렵다고 하여 내수쪽, 그것도 농업분야인 양돈업을 재벌들에게 참여하게 해야 되는가? 돼지는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며 사랑과 애착이 있어야만 되는데, 2만두 사육규모의 인력에서 사랑과 애착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며칠전 속리산에서 전국의 양돈협회 임원들이 모였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양돈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부에게 건의도 하였다.

정부는 이제 농촌에서 제일 경쟁력 있다는 양돈업을 포기하지 말고 적극 육성하여 돼지로 인하여 농촌을 잘 살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돼지고기수입을 절대반대 한다. 그리고 재벌기업들에게 양돈업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 축산 폐수단속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축산폐수를 생활, 공업폐수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외에도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 우리가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 양돈업의 현실과 미래를 깊이 인식하여 숲을 보면서 나무를 못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